

뱅크월렛카카오 등 전자지급수단 한도 폐지

금융위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 발표...핀테크 육성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공인인증서 의무규정 삭제

을 하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에 답을 수 있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가 폐지된다.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의 1일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사전심사 위주의 전자금융 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도 전면 손질돼 IT기업의 금융서비스 진출, 금융기관의 IT서비스 확대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지난 27일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렌드를 반영,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전자지급수단의 총잔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원

으로 묶인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이용한도를 1일 200만원, 한 달에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시스템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 뱅크월렛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 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어 총액 200만원 이상의 동호인 회비 수령, 여러 사람에게 동시 자금 이체 등이 이용 가능해진다. 옐로페이,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재 30만원의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범위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소액결제에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도 허용돼 별도로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앱카드 형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또 종전의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불명확한 책임부담 등 낡은 규제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기로 했다.



〈뱅크월렛카카오〉

핀테크(FinTech)

경영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말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각 금융사의 내부심사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점검을 강

화한다.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은 일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상반기 중 사라진다. 다만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유출, 금융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IT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화도를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금융사의 수익원 다양화,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금융산업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하위법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작년 휴대폰 번호이동 8년만에 최저

미래부 통계...865만명

불법보조금 영업정지 영항

지난해 이동통신업계의 번호이동자 수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유무선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이동통신 번호이동자 수는 865만4125명으로 집계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295만1821명으로 가장 많고 KT 241만4590명, LG유플러스 217만807명 등의 순이다. 연간 기준으로 이동통신 번호이동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지 못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2006년 732만8082명이던 번호이동자 수는 2007년 1018만9779명으로 1000만명 고지에 처음 올랐던 뒤 2013년(1116만5786명)까지 100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이

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이 전체적으로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이동통신사 3사가 번갈아가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는 등 악재가 겹쳐 번호이동시장이 상당한 침체를 겪었다"며 "단말기유동구조개선법(단통법) 체제 아래 앞으로는 번호이동시장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동통신이 안정화됐음을 의미한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불법 보조금에 따른 번호이동 수요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이다.

한편, 알뜰폰(MVNO)으로의 번호이동은 111만7634명으로 2012년 출범 2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출범 첫해인 2012년(9만8177명) 대비 11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합뉴스

삼성 스마트폰 4종 잇단 출시...중저가폰 공세 반격

갤럭시A5·A7로 시장 공략

LG, G플렉스2 출시로 대응

삼성전자가 새해 벽두부터 국내 시장에 스마트폰 모델을 줄줄이 출시하며 기존 제압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갤럭시 그랜드맥스 출시에 이어 21일 갤럭시노트4 S-LTE, 22일에는 갤럭시A5와 A7을 잇달아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1월에만 총 4종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는 것으로 이는 기존 삼성전자가 신규 모델 국내 출시 일정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에 국내 시장에 내놓은 새 스마트폰은 보급형 3세대(G) 제품인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뿐이었다.

전통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새해 초입은 갤럭시S 시리즈 등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비수기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정초부터 '갤럭시 군단' 공세를 펼치는 것을 두고 중저가폰 시장 공략에 대한 전략 때문이라고 본다. 국내에서도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중저가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삼성 갤럭시A7〉



〈LG G플렉스2〉

이통 3사의 '3밴드 LTA-기술 상용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갤럭시노트4 S-LTE를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내놓은 모델들은 실제로 모두 갤럭시S 시리즈와 비교해 출고가 수 십만 원이나 낮은 중저가폰이다.

특히 22일 출시된 갤럭시A5와 A7은 삼성전자가 국내 중저가폰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잘 담겼다.

중급 모델인 갤럭시알파가 인기몰이에 실패하고 단종 위기에 처하자 앞서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 선보인 갤럭시A 시리즈(A3는 국내 출시 미정)를 국내에 일찌감치 들고 나온 것이다.

경쟁사인 LG전자는 예전처럼 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 신규 스마트폰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달 초 열린 세계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극찬을 받은 커브드 스마트폰 'G플렉스2'로 새해 포문을 열겠다는 심산이다.

LG전자는 이달 말께 3사 이통사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G플렉스2는 삼성전자의 갤럭시A5·A7과는 반대로 비수기 프리미엄 시장을 노리게 된다.

갤럭시노트4 S-LTE처럼 3밴드 LTE-A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4배 빠른 LTE' 시장에서 치를 삼성전자와의 대결이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단통법 폐지하자”

새정치 전병헌 의원 입법나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분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하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요금제와 결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 단말기를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한다. 아울러 단통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번 법안을 2월초께 입법할 계획이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금주의 추천앱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도메인으로 새내 업무 시스템(인트라넷)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구축비용이 만만치 않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 같은 시스템을 저비용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앱에 대해 소개한다.

네이버웍스/제작 : 네이버/아이폰, 안드로이드

네이버 워크스는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개인도메인으로 네이버의 메일, 캘린더, 주소록, N드라이브, 웹오피스를 새내 업무 시스템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별도의 MX 서버주소설정 후 사용가능하며, 네이버가 가진 익숙함이 최대의 장점이다.



Google for Works/제작 : 구글/아이폰, 안드로이드

구글에서는 새내 메일, 캘린더, 구글드라이브 등을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유료로 제공한다. 연 120달러면 용량제한 없이 업무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구글 특유의 범용성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zoho.com/제작 : zoho.com/아이폰, 안드로이드

국내의 서비스 중에 가장 방대한 기능을 자랑한다. 업무용 메일, 문서도구는 물론 고객관리와 프로젝트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아직 국내 사용자에 친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가 어렵지만 복잡한 업무환경에는 제격인 시스템이다.



DESIGN ZOOOS 제공 : 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층 70m 최신편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지사 **318-1111**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은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둑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